

2021년 5월 9일 주일예배 말씀

끝까지 해야 목적을 이룬다

<시대 성경>

너희가 끝까지 해야 성령과 주도 함께 하시사 너희의 목적을 이룬다

<본문>

마 24:13-14

여러분 한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근본은 하나님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에 딱 알아듣고 감동 받겠습니까? 주일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자를 통해서 한술 한술 말씀을 전해 줄테니 잘 깨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수들, 중고등부들. 어른들의 수준에 더 맞출 수 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듣고 있는 줄을 압니다. 지금은 교사나 부모님의 권유로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은하수들, 중고등부들이 가장 힘들텐데요, 잘 따라와 주시면 언젠가는 더 많은 변화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가지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최대한 잘 듣게 가르쳐 줄테니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SS 얘기가 나와요. 오늘 저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고 깨달은 것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반전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끝까지 할지 귀기울여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몸소 보여 주셨는데 그래도 끝끝내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판도가 고난으로 기울어졌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성전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로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돌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끝이 언제냐구요. 그렇다고 이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니라. 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저주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영은 부활하시어 천국에 오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 바위가 터지며 각종 징조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했습니다. 이후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또한 민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잡아 넘기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은 식어져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이루고 신약 2천년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그러합니다. 이 시대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가 더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동시성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셨지만 끝끝내 반대하고 판국이 기울어 졌습니다. 이 시대도 그와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후 주는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 환난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힐문하고 악한 자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은 식어져 갔고 이로 인해 섭리사 생명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했는데 그 시대를 겪은 우리가 제가 핵심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었고 이 시대가 주를 받지 않음으로 미움 다툼이 있었지만 주의 말씀대로 행한 자들은 신부급 휴거를 이루었습니다. 부활의 때에 주와 함께 되었고 새로운 생명들을 전도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각종 환난 중에 끝까지 견딘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의 머리가 진동하도록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강도 9같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과 쓰나미와 같았던 환난기를 이기고 신앙이 살아 있으니 얼마나 대견합니까? 물론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고 약하기도 했지만 살아 있잖아요. 또 우리 중고등부나 2세들, 어린 자들은 앞뒤 상황을 잘 모릅니다. 저도 어렸지만, 저보다 더 어린 자들도 끝까지 환난 악평을 이기고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잘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커서 벌써 중간지도자, 핵심 지도자들이 되었고, 섭리사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애기도 데려오고, 애기를 가르치는 자도 되었습니다.

특히 20대후반에서 40대 초반 지도자들은 환난 가운데 컸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없어요. 주가 나를 아실까? 이런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깔끔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튼튼한 손발이 되어서 섭리사를 뛰고 달릴 것입니다.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푹푹 뭉쳐서 싸워 이겼습니다. 주와 함께 끝까지 함으로 이겼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든지 몸을 푼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귀한 역사를 증거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부터 그런데요? 저 지난 3년동안 알잖아요. 그 전만큼 뛰지 못했어요. 지금은 정말 몸푸는 기간이었구나. 이제는 정말 몸을 풀고 뛰는때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할 수밖에 없게끔 안하면안되게끔 해야만 하게끔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선생의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어땀어요? 마저! 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무거워 지기도 했을 거예요. 금요일 말씀에 방향이 좀 나왔어요.

과연 어떻게 시대 말씀을 가르칠까. 어떻게 주를 증거할까. 그 핵심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명을 전도하고 주를 증거하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사람들, 사실 이들에게 잘 증거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상대가 준비가 안되었는데 막 전하면 거의 실패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상대가 제대로 알고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예요. 상대가 제대로 깨닫게 하는 목적. 어떻게 해야 이룰까?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해야됩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오늘 어떻게를 말씀해 줄것입니다.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일 때 어떻게 하죠? 막 먹어! 먹어란 말이야~ 이렇게 합니까? 혹은 엄마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든지 아니? 하면서 달래죠? 넘긴 것 확인하고 먹여요. 아직 넘기지도 않았는데 먹이면 토하죠. 아이 이유식 먹 일때부터가 전쟁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재롱잔치 다하면서 먹이잖아요? 아기의 마음을 다 맞춰 가면서 한술 한술 떠먹이죠?

이와같이 말씀을 먹일때도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냐고 한꺼번에 막 쏟아 내듯이 먹이면 안됩니다. 섭리의 예배가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진짜 SS예배는 정말 혁명이예요. 예배 영상 있죠? 세상에서 우리의 영상 제작하려면 하나당 3천만원. 레볼류션 예배때는 5-6개 만들죠? 2주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잘 모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천지창조때 시간을 들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순리로 인간들이 살아가게 하셨죠. 시간도 때도 필요하죠. 시험기간인데 막 말씀 들어라고 하면 못 들어요.

집에 밥 하러 가야 되는데 말씀 못 들어요. 자기 시간에 맞춰서 이끌어가기 보다 상대의 때에 맞춰서 분위기에 따라 맞춰 전해 줘야 합니다.

그때 그때 환경과 분위기를 보면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대 복음은 모두가 들어야 해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증거를 해서는 안됩니다. 돼지목에 진주를 걸어도 귀한 것을 몰라요. 말씀 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서 함께 하실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맞춰 놓아야 합니다. 생명 살림에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해보고 대화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사연과 생각도 알게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기성출신이에요? 너무 열심히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곤고한 상태였어요. 신앙문제가 안 풀려서 너무 곤고했던 때였어요. 저는 그쪽으로 딱 얘기를 해주셨을 때 먹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도 안 믿음, 혹은 나는 학업만 관심 있음, 아니면 아예 학업에 관심 없음. 너무 달라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에 따라서 마음과 심정을 맞추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을 많이 붙들고 함께 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 보면서 하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도 하지만 진짜 지혜롭게 전하기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죠. 성령님은 분위기에 따라 환경도 옮겨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카페보다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제가 지금 전도한 아이는 먹을 것을 좋아해서 음식점에서 말씀이 잘 들어가더라구요.

적절한 환경으로 인도를 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마음도 통하고 그에 따라 말씀을 전할수 있어요. 분위기 만들어지고 장소가 되어야만 대화하게 되고 너가 속마음이 그랬구나.. 알게 되잖아요?

끝까지 해야 성령과 주와 함께 목적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 목적을 이루도록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말씀은 선생님께서 목요일 하루 종일 행하시고 받으신 말씀이에요. 금요일에 나왔죠.

증거가 최고 목적인데 막 부담스러워. 우리 사람 보면 월명동 가면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벌써 가이드가 되죠.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상대에 맞게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환경맞추기, 상대의 마음과 생각 맞추기입니다. 상대와 대화하다가 마음을 열때가 있어요. 환경 분위기가 딱 맞으면 진도가 짹~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문이 열리니까 증거문이 열려서 10시간 다 듣고 끝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개 1차 2차 3차 단계별로 나눠서 해야 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 하나 행하면서 아주 이 말씀은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노련해야 됩니다. 막상에서 막 여유 있게 하는게 진짜 노련해서 그래요. 노련하다는 것은 그만큼 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해봐서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게 노련미입니다. 이제 섭리사는 노련미가 있는 섭리사입니다. 저 43살 먹었어요. 에세스들 너무 까마득한 나이죠? 나이 먹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보람과 고난도 겪었고, 하나님의 창조목적도 이루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이루고 2021년을 맞은 것입니다. 노련하게 하려면 먼저는 자기가 확실히 알아야 해요. 모르면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자기가 온전하게 알아야만 노련하게 생명을 이끌고 말씀에 귀를 기울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를 보면서 노련하게 끌어 나가야 해요. 더 이상 주입식 교육은 없어야 해요.섭리사 사람들 특히 가정국은 자녀들 생각하면서 들으면 돼요.

상대가 겪은 것이 무엇인지,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노련하게 이끌수 있어요. 적을 알고 나도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상대의 마음도 알아야 승리할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기도 하고 경제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기에 그 마음을 꼭 알아줘야 해요. 그래야 노련하게 이끌어 갈수 있어요. 가정국도 보면 에세스들에게 너무 마음이 조급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어라해서 믿는다면 그냥 믿어라~~ 하죠. 저도 어릴 때 어느 설명도 없고 인도도 없고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티가 난거죠.

마음을 알아주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주신다고 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섭리인에게 잘 전해줘야지 하고 편안하게 준비하면 성령님께서 방향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무조건 전하려고 하고 아무리 불나게 해도 상대는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는 개인의 환난이 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교통하고 수시로 관리해주기. 그리고 끝까지 꼭 하도록 말해주기입니다.

물론 섭리사 환난기때는 좀 전투적이었어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은하수 에세스들도 제가 외쳤던 것 기억할 거예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전했거든요. 그때 우리 조카가 4살이었는데 이모는 왜 그렇게 울어? 하면서 울지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절반이 웃음. 물론 눈물이 안 흘리는게 좋은 것은 아니죠. 이제는 저부터도 성경도 많이 얘기해주고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지금은 부활기의 때.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때예요. 이제는 더욱 넘쳐나는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플러스 인격을 가지고 아주 노련하게 주를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노련하게 해야될 때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좋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지를 몰라요. 제대로 가르쳐 줘야 좋은 것을 아는 거예요. 오랜만에 온 자들, 어린자들, 섭리사에 이제 온 자들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환경도 만들고 상대의 마음도 알아주면서 가르쳐 줘야 된다.

제가요, 오늘 SS예배나가요? 아니예요. 요즘 에세스에 완전 꽃혔어요. 성령께서 엄청나게 자극을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게 아니라 해야만 하게끔 감동을 주세요. 사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게 된 계기가 우리 SS 때문이기는 해요. 레볼루션 킹덤 이후에 계속 아이들을어떻게 이끌어줘야 하는지 연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SS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잘 안 들어 온대요. 초능력인데 앉아 있어도 전혀 안들리는 초능력이에요.

지금 저의 목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명이라도 더 주께 가까이 오게 해서 말씀을 넣어주고 더 멋지게 크게 만들까.. 이것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이 날 선생님께서 말씀을 실천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목요일 오전부터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은 손님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상황을 알아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더 행하시고 말씀주시겠다고, 금요일에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거예요. 선생님도 목요일에 끝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저도 계속 에세스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이끌지 목표를 설정 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환경의 영향에 많이 받아요. 지금은 들어서 보는게 중요한데, 힘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주의 말씀을 못 들으면 맞춰서라도 듣게 해야되는데, 저의 목적은 한명이라도 예배에 담기게 하는게 목적인데 3-4개월 한번씩 레볼루션 킹덤을 하고 있죠? 8월에 아주 축제를 할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되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 선생님의 설교를 그대로 보고 있죠? 선생님의 설교를 완전 에세스맛게 해줄거예요. 저도 3주에 한번은 완전 에세스 맞춤 설교해줄 거예요. 누가 설교를 할것인가? 언제부터 할것인가? 5월 23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설교자가 누구냐. 조은이가 합니다. 선생님께서 원고를 먼저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완전 맞춤 설교를 할거예요. 여러분은 매주 저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 위기의 기간을 헤쳐나갈거예요. 저는 에세스의 상태를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과 주님과 함께 하면 할수 있어요. 정말 코로나 기간에 에세스를 책임지고 하려고 해요.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할테니까요. 저의 목적 괜찮죠? 한명이라도 더 담게 하겠다! 가정국, 장년부, 청진, 청미, 캠퍼스 모두 목적을 정해서 하면 아주 희망차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성령집회 처음 시작했을 때 6살 애였던 아이가 지금 저랑 무대에 같이 서요. 그래서 지금 어린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해요. 신앙의 어린아이 잘 크면 같이 뛴니다. 선생님 전성기 20년 잡으셨는데요! 지금 은하수 작게 보면 안됩니다. 저 어릴 때도 저보고 저 어린 애가 뭘하겠나 했는데, 지금은 저는 주님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저를 보시면 얼마나 놀라우시겠어요? 맨날 선생님 꿈에 머리 양갈래로 따고 중국옷 입고 호신술하면서 나왔

대요. 엄청 어린 아이가 호랑이를 쓰다듬으면서 가는 환상으로 나왔대요. 그런 어린 아이가 커서 지금 주를 증거하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기쁘고 찬란한 섭리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상에서 섭리전체에게 말씀을 받아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말씀을 전하고 더 세세하게 살피고 특히 섭리 중간지도자들 키우고 양성하면서 하겠습니다. 캠퍼스도 해줄 것입니다. 에세스, 캠퍼스 더 신경쓰면서 이들을 받쳐주면서 해 나갈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주의 말씀에 맞춰서 끝까지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게 될것입니다!

올해로 43년을 맞은 섭리역사!

극심한 환난을 거쳤지만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목적 이룬 섭리역사! 섭리사 부활기를 맞은 후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2021년 영육 새롭게 역사를 맞은 섭리역사!

끝까지 견디며 이때를 맞았으니 끝까지 성령과 주와 함께 함으로 목적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해야 끝에 가서 최고로 좋은 기회가 오고 끝까지 해야 완성 됩니다. 끝까지 해야 구원도 받게 해주고 자기 목적도 이룹니다. 끝까지 해야 성령과 주가 함께 하시어 목적을 이룹니다. 아멘!

찬란한 역사 더 위대해지고 섭리역사의 모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하수 에세스들 처음 오신 분들 잘 이끌어 줄테니까 목적을 두고 끝까지 따르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